

[칼럼] 매체 시간 단축

2022-07-29
서화 [1157521]

[스펙]

- 2021학년도 수능 원점수 98점, 백분위 100 (상위 0.1%)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법과 작문 만점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와 매체 만점 (전국 59명)

시간이 모자라다.

여러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읽는 속도 자체를 빠르게 만들거나,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근데 전자는 현실적으로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라는 거냐.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서 후자가 있잖아요.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본 칼럼은 특별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허나 본질적이고 단순한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영역은 매체입니다.

매체는 정말 사람에 따라 극단적으로 속도 차이가 나는 영역입니다.

저는 이번 6모? 매체 푸는 시간 딱 3분 걸렸습니다.

국어만 하더니 미쳐버린 거 아니냐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매체도 문학과 비슷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사고의 이원화 - 읽으면서 문제를 푼다.

문학에서 말했죠?

ㄱ~ㄴ, a~e, [A]~[E] 같은 건 읽으면서 풀어버리라고.

매체도 동일합니다.

근데 매체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넘쳐나요.

게다가 매체는 내용 이해도 까다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고의 이원화도 더 쉬워집니다.

내용 읽다가 잠깐 선지 쓱 판단하고 오고,

다시 내용 읽다가 선지 판단하고...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보도의 주요 제재를 부각하였다.
- ② ㉡은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③ ㉢은 기자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 ④ ㉣은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 ⑤ ㉣은 이후에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보조 용언 '있다'를 사용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하였다.
- ② ㉡: 보조사 '도'를 사용해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③ ㉢: 감탄사 '자'를 사용해 시청자의 해당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④ ㉣: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해 제도 시행 관련 정보를 관계자가 언급할 것이라는 추측을 표현하였다.
- ⑤ ㉣: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였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A]~[E]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영상과 채팅의 결합을 통해 방송 내용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뤄진다. 예전대 수용자는 방송 중 채팅을 통해 이어질 방송의 내용과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미 제시된 방송의 내용을 추가, 보충, 정정하게 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생산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 ① [A]: '빛세종'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B]: '햇살가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생산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 ③ [C]: '꿈포미'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④ [D]: '아은맘'은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진행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⑤ [E]: '영롱이'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와야, 벌써 읽으면서 3문제나 풀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발췌독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신속성을 모두 잡는 방법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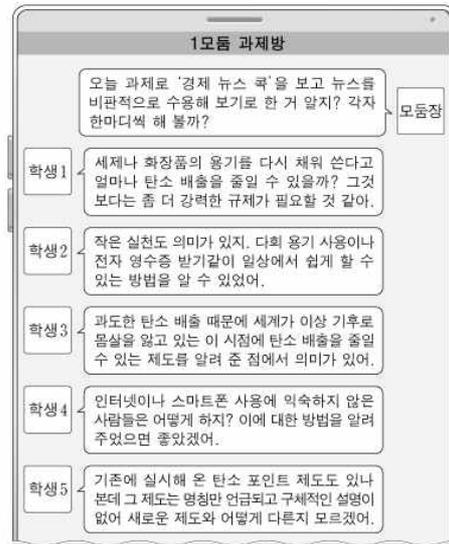
2. 매체의 본질 : 일대일대응, 더 효율적으로!

매체는 사실 하나씩 대응해보면 다 풀리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끔 고민해야 합니다.

42. (가)를 시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대화방의 내용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실천 항목의 효과에 주목해 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주목해 제도의 실천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제도의 시행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의 시의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42번 문제, 지문 안 읽고도 풀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선지와 대화방 내용만 일대일대응하면 풀리는 문제였죠.

이렇듯 문제를 풀 때는 '지문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 문제도 매체에는 꽤 있거든요.

43. (나)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하였군.
- ②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코드를 제시하여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하였군.
- ③ (가)에 제시된 제도의 개인적 혜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돈과 저금통의 이미지를 활용하였군.
- ④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하여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하였군.
- ⑤ (가)에 제시된 수용자보다 수용자 범위를 한정하고 생산자를 명시하여 메시지 전달의 주체와 대상을 표현하였군.

43번도 (나)만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와 하나씩 일대일대응하면 됩니다.

심지어 (나)는 포스터니까 그림과 일치하는 내용 찾기네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절대 아니죠.

매체는 심플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으로 80%는 빠르게 풀어낼 수 있고,
남은 20%만 정석적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기억합시다.

사고를 이원화하여 읽으면서 문제를 푼다.

일대일대응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지문으로 돌아갈지, 어디를 읽을지 파악하고 움직인다.

한 줄 요약 : 뭘 하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서화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